

여야 원구성 일괄타결 추진...제헌절 이전 마무리 공감대

국회의장 증재 원내대표 회동

사개특위 등 핵심 쟁점 이견 여전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이르면 입법기관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제헌절(17일) 이전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여야는 44일째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던 여러 이유가 있다.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하기로 하되 논의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 우리 국민들 민생경제 어려움 겪는데 선물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그런 점에서 두 원내대표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개특위나 법사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여야가 이날 합의대로 제헌절 이전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야는 원 구성 방안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권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라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지는 야당 측 제안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정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 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 단순한 해법이 있는데 복잡한 조건을 좀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검수완박 합의 파기 등 지난 일을 두고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 대행이 "마음대로 하라. 다 받고 싶은대로"라며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사과해야지"라고 몰아붙이자 박 원내대표도 지지 않고 "약속을 했으면 잘못된 건데 사과를 해야지"라며 맞받아쳤다.

이에 권 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거에 대해 계속 사과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냐. 그때 대국민 사과했으면 끝이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대로 사개특위에 의원 추천을 하라는 요구에 권 원내대표가 합의안 썼을 때 국민들께 사과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언성을 높인 것으로 기억한다"며 "의석이 적은 자신들은 힘이 없다고 강변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하고 일감 조기 공급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규제해파, 연구개발(R&D) 지원, 첨단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용주의 차원에서 장·차관과 실·국장이 두루 참여하는 백화점식 대신 장관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힌 뒤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드리드를 찾아 폴란드·체코 등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하절기 전력 수요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전날 기획재정부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무

진 배석자 없이 이창양 장관의 단독 보고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집무실 원탁 테이블에 배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전 확대를 위해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에 나서고, 연내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획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권성동 "당 갈등 해소...민생 위해 역량 발휘"

"여권 지지율 정체 장기간 지속"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이제 그런 (당내) 갈등 상황이 다 해소된 만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당이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가깝고 어려운 곳을 굽어드리는데 저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혼란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어제 의원들이 직무대행 체제를 빠른 시간 내 인정 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3중고, 4중고 상황이 단시간 내 해소되기 굉장히 어렵다"며 "단시간 내 외부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지지율 정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당이 민생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성과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붕괴 등 외부 요인이 겹쳐서 우리 대책이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권 대행은 '6개월 당원권 정치'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직무대행체제'에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국민의당 당 최고위원 인사와 관련해선 "당과 당의 합의 사항이므로 지켜야 한다"며 "시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떠난 혁신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 직무정지와 관계없이 당 지도부 의결로 발족한 위원회고,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혁신 사안을 만들어 달라는 응원과 격려 의미에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 조직 군살빼기...각 부처 정원 매년 1%씩 줄여 재배치한다

16년만에 범정부 조직진단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군살 빼기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할 융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먼저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

검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 정부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